



## 2013 IIF 연차 총회 주요 논의내용<sup>1)</sup>: 세계경제 및 금융산업 현안과 전망

이아름 연구원

■ 201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13 IIF(Institu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연차 총회에서 세계경제 및 금융산업 현안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IIF는 국제금융협회로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국의 채무문제에 대해 은행 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해 1983년 설립되었으며 회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투자관리 회사로 구성되어 있음.<sup>2)</sup>
- 또한 IIF는 신흥국 및 다른 국가의 글로벌 금융 이슈 및 규제와 정책 등을 분석·연구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당국 및 민간 금융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재정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 미국은 2014년 2월까지 정부부채 한도 상한 협상 유예를 통해 국가부도위험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이 상존함.
- 미국의 금융정책은 자산매입 축소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문제와 고용 등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자산매입 축소는 시장에 신뢰감을 주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지난 1994년과 2006년 갑작스러운 금융정책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유럽>

- 침체기를 겪었던 유럽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성장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1) 본 보고서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IF 연차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제금융센터에서 연차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2) IIF는 현재 450명 이상의 회원과 아프리카, 중동, 북미와 남미, 유럽 및 아시아 등 70개 이상의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음.

- 독일은 투자 주도, 스페인은 은행 건전성 확보, 아일랜드는 재정문제 해소 등을 통한 성장회복 노력이 필요함.
- 무역증진을 위해 아시아 국가와의 FTA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본〉

- 아베노믹스는 소비와 수출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리고 추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행은 소비세 인상 등을 반영하여 물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재정지출은 정부부채와 경기 경착륙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반면,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를 견인해왔던 신흥국의 경우 구조적 문제 및 중국의 성장 모멘텀 약화 등으로 고성장 추세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여력 확충이 필요함.
  - 신흥국은 설비과잉과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에 따른 수요부진 등으로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음.
  - 중국의 신용증가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중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 정책당국이 국영기업의 개방과 호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신흥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장 정체 또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창출을 지원하는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대형은행 규제와 더불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금융포용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도 확산될 전망이다.
  - 대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파산절차 관련 국제적인 지침 시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함.
    - 향후 대형은행의 부실 발생 시 정부와 조세납부자에게 대형은행 파산에 따른 비용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과 부의 집중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금융포용성에 대한 논의도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금융회사가 주주와 고객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됨.
-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성 둔화와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계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부채조정 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IMF, 국제금융센터 등)